opusdei.org

오푸스데이 단장 몬시 뇰의 1월 9일 메시지

새해는 일상생활의 환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하느 님께 귀 기울이기를 바라고 우 리의 시선을 불투명하게 만들 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깨끗이 없애기를 바라는 새로운 기회가 됩니다...

2019-1-9

로마, 2019년 1월9일

사랑하는 여러분, 예수님께서 저의 자녀들을 축복해주시기를 빕니다.

새해는 일상생활의 환경에서 우리에 게 말씀을 하시는 하느님께 귀 기울 이기를 바라고 우리의 시선을 불투명 하게 만들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깨끗이 없애기를 바라는 새로운 기회가 됩니다. 호세마리아 성인께서도 "새해에는 새 투쟁을" 이 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.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(in novitate sensus: 참조 로마 12,2) 새로운 지향 을 가지고,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사랑 하기 위한 기쁘고 차분한 투쟁을 하 며 걸어 가십시오.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삶이라는 항상 새로운 삶의 은혜를 받아 드리십시오.

우리는 우리들의 힘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. 하느님의 은총과 다 른 이들의 도움이 있습니다. 이 세상 과 천국의 교회가 꾸준히 걸어가기 위한 우리의 결심을 지탱하고 있습니 다. 이것이 참된 성인들의 통공입니다. 우리도 우리의 기도와 투쟁으로 이웃들을 지탱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른이들의 얼굴과 이름으로 채우곤 합니다. 특별히 올해는 곧 시복되실 과달루페 오르티스 데 란다수리의 전구를 청하고 있습니다.

호세마리아 성인께서 1958년 말 말씀하셨던 새해인사를 인용하여 같은 바람을 가집니다. "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아주 행복하게, 아주 충실하게 사시길 빕니다".

애정이 가득한 강복을 배풀어 드립니 다,

여러분들의 아버지,

페르디난도

pdf |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from 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 opuseudei-danjangmonsinyolyi-1weol-9il-mesiji/ (2025-12-12)